

IBKS Spot Comment

코스닥리서치

유창근

02) 6915-5655

changsic12@ibks.com

[비츠로셀]

배터리 보관창고 화재 발생 Comment

What's New:

2026년 8월 31일 오전 8시 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비츠로셀 스마트캠퍼스 내 배터리 보관창고에서 화재 발생. 당진 스마트캠퍼스 내 배터리 보관 공장은 총 2개소로, 주차장에 접하고 있는 1개의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비츠로셀에 따르면 불길은 오후 3시 20분 경 잡혔고, 작성시간 오후 7시 기준 아직 연기는 발생하고 있음. 월요일 출근 시간 이전에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 주요 제품인 리튬 1차전지(Li-SOCl₂) 특성 상 화재 발생 시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완전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비츠로셀은 2017년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대부분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음. 화재 이후 재건된 비츠로셀 당진 스마트캠퍼스의 모든 공장은 화재를 잘 견딜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단층 구조에, 제품과 공정별로 건물을 분리하고, 각 건물의 이격 거리는 10m 이상으로 설계함. 실제로 이번 화재에서도 주변 건물로 불길이 옮겨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So What?: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비츠로셀의 재고자산은 679억 원임. 창고별로 보관하는 품목에는 차이가 있으나, 배터리 저장창고 1개동이 전소되었다고 단순 가정 시, 재고 자산 기준 피해 규모는 300~400억 원 사이로 추정됨. 화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진화 후 정확한 피해규모가 알려지면 보험금 규모도 산정될 예정임. 나머지 배터리 보관창고와 생산시설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단순 보관창고 재건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빠르게 지나갈 가능성이 높음. 다만, 3Q26~4Q26 실적에는 일정부분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함.

2026년 3월 고온전지 경쟁사인 캐나다 E사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여 모든 생산이 중단된 상황이며, 재건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추정되고 있음. 2017년 비츠로셀 화재, 2024년 아리셀 참사, 2026년 2건의 추가 화재 등 리튬 1차전지는 기본적으로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그러나 비츠로셀은 리튬 전지로 인한 화재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동일한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비츠로셀의 피해가 현저히 적은 상황임. 향후 고객사나 투자자의 리튬 1차전지 기업 선정 기준에서 안전한 생산시설이 갖는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함

그림 1. 비츠로셀 당진 스마트캠퍼스 배치도



자료: 비츠로셀, IBK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